



내가 만들어 가는 행복

강성혜/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국장

사 략이 사는 타입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모든 것에 불평하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불행해 하며 사는 타입이다. 둘째는 아무 생각없이 하루하루를 살며 왜 사는지도 모르며 그냥 살아 가는 타입이다. 세 번째 타입은 삶의 모든 것이 행복하며 기쁨을 느끼며 어려워도, 못마땅해도 결국은 행복한 조건으로 만들어 가는 타입이다.

나는 대체로 세 번째에 속한다고 자부(?)한다. 어떠한 상황에 빠져도 그속에 파묻혀 속상해 하며 헤어 나오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지 않는다.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점을 찾아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완전히 포기하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것을 찾아 나서는 성격이다. 그래서 언제나 행복하게 살며, 불행하다고 느껴지거나 속상한 일이 생길 때에도 그것은 순간이요 또 새로운 것을 찾아 나 스스로 행복하도록 노력하며,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행복하다고 믿고 산다.

대학 졸업후 기독교 여성단체에서 일하게 되었다. 언제나 배우려고 노력하며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며 즐겁게 살았다. 22년이 넘는 세월을 직장에서 일하다가 3년여 동안 집에서 쉬게 되었다.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워 주시고 살림해 주셨는데 일하면서는 큰 고부갈등을 느끼지 못했었으나 쉬면서는 자주 부딪히기 시작하였다. 원인을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처음에는 모든 원인이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다. 다른 이들이 말하는 시집살이가 나를 즐겁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결국 시어머니와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어느날 등산하면서 숲속에 혼자 있게 되었다.

앉아 생각해 봤다.

‘나는 무엇인가?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속상해 하며 살아 가는가?’

바람이 불어 왔다. 시원한 바람이었다.

‘아, 그거구나, 일이구나, 시어머니가 아니구나.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구나.’

그랬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부족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험을 펼칠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일년전 나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사무국장을 맡게 되었다. 1999년 4월 17일 창립된 신설 단체로서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조직정비, 사무행정체제 확립, 새로운 사업 계획, 추진 등.

나는 이 일들을 다른 동료 회원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면서 기쁨을, 행복을 느낀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에 행복한 것이다.

사업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속에 조직이 성장하고 회원들의 의식이 성장하며, 그동안 무관심속에 파묻혔던 여성장애인의 성폭력문제 등 인권현황이 사회에 고발되어지며, 여성운동계나 정부 정책적 차원에까지 문제가 끌어 올려져서 논의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며 보람을 느낀다.

인간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다. 특히 이 일이 나만의 평안을 위하여 아니고 이웃을, 가족을 위한 일일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삶속에 활력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고 싶은 일을, 특히 이웃을 위한 삶을 선택하여 살므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